

요지: 사랑스러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라즈 요기라 여기며, 사악한 관계에 대한 모든 애착을 떼어내라. 오직 너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만 함께 머물러라.

질문: 너희 자녀들이 육체의식을 초월한 데 대한 경전에서의 기념물은 무엇이냐?

대답: 판다바들이 산에서 녹아버린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몸을 벗으려고 눈 덮인 산에 갈 필요가 무엇이었느냐? 몸을 벗으려고 특별히 하말라야에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 법이며, 사실 너희는 요가의 힘으로 몸을 벗는다. 너희들은 육체의식을 잊고 무체가 되는 연습을 쌓는다.

옴 샷티. 영적인 아버지가 너희 영적인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매일 설명하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일부를 잊는다. 지금 이것이 합류시대라는 것과 우리가 합류시대에 있다는 것을 너희 자녀들은 각각에 간직해야 한다. 아버지는 합류시대에 온다. 이제껏 기억되어 온 합류는 철시대의 끝과 황금시대의 합류다. 너희가 소리쳐 부르는 것은 지금 이때다. 철시대의 끝은 불순한 세계라고 불린다. 이런 이유로 다른 때에는 그를 부르지 않는다. 아버지가 오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철시대의 끝에만 너희가 나를 부르며 “바바, 오셔서 불순한 저희들을 정화시켜 주소서. 철시대의 끝과 황금시대의 시작에 오소서”라 외친다. 사람들은 소리쳐 부르지만 사이클의 지속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른다. 그들은 신봉을 행하고 비틀대며 헤맴으로써 결국은 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이클의 끝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철시대의 끝이 되어야만 그들은 그를 기억한다. 황금시대와 은시대에는 오직 행복뿐이다. 동시대에는 슬픔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 철시대에 매우 불행해지면 사람들은 소리쳐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들이 타모프라단한 때, 즉 불행할 때 그들은 “오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여, 오소서!”라고 소리쳐 부른다. 슬픔의 굴레는 여러 가지로 많다. 사람들은 슬픈 때에만, “와서 이 굴레에서 저희를 해방시켜 주소서,”라고 소리치며 신을 부른다.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너희는 아주 큰 소리로 부른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미로와 같아서 어느 길로 가도 너희는 출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치게 되면 너희는 소리쳐 부른다. 여기서도 역시 아주 불행할 때 그들은, “오, 슬픔의 제거자, 행복의 공여자시여”라 소리쳐 부른다. 오,장님들을 위한 지팡이인 당신! 이라고. 너희가 “오, 장님을 위한 지팡이인 당신!”이라고 소리쳐 부르는 것은 지금 이때다. 너희들은 지금 합류시대에 있다. 한 쪽에는 판다바들이, 다른 쪽에는 카우라바들이 있다. 창조자도 모르고 피조물의 시작, 중간, 끝도 모르는 자들은 눈 먼 장님이라고 불린다. 창조자와 피조물을 아버지에게서 알게 된 자들은 눈뜬 이들이라고 불린다. 너희는 왕국의 행운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황금시대는 쉬브 바바에 의해 세워지고 그래서 쉬바의 사원(쉬발라야)이라 불린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악해지면 죄의 길이 세워지고 그래서 그때에는 그것이 사창가(배살라야)라고 불린다. 황금시대는 쉬바의 사원이고 철시대는 사창가다. 합류시대의 브라민인 너희가 지금 사창가에도 속하지 않고 쉬바의 사원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안다. 우리는 쉬바의 사원으로 갈 것이다. 사창가에 있는 자들과의 사악한 관계들에 대한 우리의 애착은 이제 끊어졌다. 지금 우리에게는 미래의 관계들에 대한 애착이 있다. 우리는 이제 라자 요기들인 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요기에 불과하다. 그들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에서 살아야 한다. 브라민들과는 여전히 관련이 큰데 왜냐하면 다른 누구도 브라민들이 하는 그렇게 고귀한 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아버지만이 영적인 봉사를 하는 도구가 된다. 그는 아버지, 선생, 구루다. 그는 참된 바바, 참된 선생, 사트구루다. 진리인 그 분은 지고라고 불린다. 우리는 그에게서 유산을 받고 있다. 이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매 순간 행복을 경험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일 첫째로 그는 이 세계 너머에서 온 아버지다. 그는 참된 선생이며 참된 구루다. 그는 세계 사이클의 시작, 중간, 끝에 대한 지식을 주며, 그래서 지식의 대양이라고 불린다. 제일 먼저 그를 찬양해라. 그는 참된 아버지, 참된 선생, 참된 사트구루다. 그는 진리의 종교를 세운다. 사람들은 하나의 왕국이 있게 해달라고 청하지만, 그것은 오직 황금시대에만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것이 존재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가 있어야 하고,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한다. 세계는 단 하나뿐이고, 세계에 왕국이 하나만 있는 것도 가능하다. 신인들의 왕국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격동이 전혀 없었다. 무한한 아버지가 와서 왕국을 세운다. 라자 요가를 가르치는 이가 슈리 크리슈나가 아닌 아버지라는 것을 이제 너희들은 이해한다. 그들은 그렇게 한 이가 크리슈나였다고 믿는다. 오직 왕국이 세워져야 할 때에만 라자 요가를 가르친다. 경전에는 오직 찬양뿐이다. 그저 찬양의 노래만 부름으로써 라자 요가를 가르치는 이가 있느냐? 기타 등을 들려준 사람들이 라자 요가를 가르치느냐? 기타를 들려줄 때 그들은 그저 과거에 있었다가 가고 없는 자들에 대해 칭송의 노래를

부를 따름이다. 신이 지식을 말해준 자들은 왕족의 신분을 얻었다. 축제들 등은 모두 신봉의 길에 속한다. 주된 것은 합류시대다. 쉬브 바바가 온다. 그 다음 쉬바의 탄생일 후에 크리슈나의 탄생일이 있다. 새 세계는 반드시 쉬브 바바가 온 후에야 세워질 것이다. 크리슈나는 황금시대의 주인이다. 쉬브 바바가 왔고, 크리슈나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그가 이 지식을 크리슈나에게만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크리슈나의 나라를 세웠을 것이다. 그는 타모프라단한 너희를 사토프라단하게 만들려고 너희 영혼들에게 요가를 가르쳤다. 너희는 그 다음에 사토, 라조, 타모의 단계를 거친 자들이다. 너희가 그저 황금시대에만 가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4생의 계산내역도 있다. 황금시대 후에는 반드시 은시대가 와야 한다. 낮 다음에는 뱀이 와야 한다. 누가 어떻게 황금시대를 세우느냐? 황금시대는 새로운 세계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낡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미사일들이 쓰이는 바로 그 대 마하바라트 전쟁이다. 그들은 그때에 판다바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승리했다는 말까지 한다. 그들이 틀림없이 주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그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어디서든 몸을 벗겠지만, 왕국에는 들어갈 것이다. 몸을 벗으려고 특별히 히말라야로 올라가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다. 너희들은 여기서 요가를 공부하고, 요가의 힘으로 몸을 벗어야 한다. 몸을 벗으려고 그들이 눈 덮인 산까지 갈 필요가 무엇이냐?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뱀이 낡은 껌질을 벗고 새로운 피부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도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너희들은 평화의 나라로 간 다음에 황금시대로 갈 것이다. 바바가 이미 설명했듯이 황금시대에는 몸이 늙어지면 너희는 각자의 때에 몸을 벗을 것이다. 너희는 몸을 벗고 다른 몸을 취한다. 거기서는 너희가 평화의 나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제 평화의 나라로 가야 한다. 너희들은 이 연습이 영원해지도록 지금 이것을 연습한다. 너희들은 낡은 세계를 벼려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연습한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다. 천국의 주민들이 몸을 벗으면 그들은 천국에 남아있고, 지옥의 주민들이 몸을 벗으면 그들은 지옥에 남을 뿐 천국으로는 갈 수 없다. 아버지가 와서 너희에게 라자 요가를 가르쳐야만 너희가 황금시대로 갈 수 있다. 오직 그제야 너희가 신인왕국과 황금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가 왕이나 황제의 작위를 받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너희는 다른 수준의 지위를 받지만, 같은 이름이 지속된다. 너희들은 이것을 바꿀 수 없다. 일부 어떤 사람들은 돈을 내고 평생의 작위를 받는다. 전에는 작위를 받으려고 10만이나 20 만 루피를 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아버지가 여기 앉아서 너희 영적인 자녀들에게 설명한다. 그는 영혼들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라 불리고, 모든 이가 “오 바바여, 와서 불순한 저희를 순수하게 만들어주소서”라고 소리쳐 부른다. 여기에는 슬픔이 많으니, 라마의 왕국으로 저희를 데려가 주소서. 드라마에 따라서 나는 5천 년 전에도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 지고의 아버지, 지고의 영혼이 와야 한다. 이 사이클은 계속 돌아간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매 사이클의 합류시대에 온다. 이 말을 반드시 써 놓아야 한다. 나는 드라마 계획에 따라서 온다. 사람들이 이것이 5천 년의 드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드라마”라는 말도 써 놓아야 한다. 지금은 모든 인간이 다 불순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타락한 죄인들입니다”라 한다. 이것은 정말로 사창가이며 독의 대양이다. 비슈누의 나라는 락쉬미와 나라얀, 둘 다 있는 우유의 대양이었다. “우유의 대양”이란 비교를 위해서 하는 말일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황금시대에 있는 대양과 철시대에 있는 대양은 같은, 하나의 대양이다. 황금시대에는 너희가 대양 전체의 주인이다. 너희들은 땅과 하늘 전체의 주인이다. 지금은 그것이 조각조각 나뉘었다. 이것은 지금 합류시대다. 합류시대를 기억하면 너희들은 이제 황금시대로 가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합류시대일 때는 바라도 틀림없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는 이 세계를 바꾸는 분이다. 수립은 여기서 브라마를 통해 일어난다. 너희들은 지금 이런 그림들을 만들고 있다. 바바는 빛과 힘으로 된 한 점이다. 너희 영혼들도 역시 빛이다. 너희의 이 빛이 어떻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의 이마에 점(틸락)을 찍어서 보여줘 왔다. 어떻게 하면 영혼이 빛과 함께 보일 수 있느냐? 빛이 보이면 그것은 더 큰 형태가 된다. 그들은 큰 빛을 숭배하고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신이 빛의 형태라고 말한다. 사실 빛은 순수성을 나타내는 표시다. 사람들은 그가 빛의 형태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점을 작은 빛으로 나타낸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숭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그들은 그것을 큰 빛으로 보여준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지고의 영혼, 신이지만, 그 토록 작은 점이 어떻게 숭배될 수 있겠느냐? 빛이 어떻게 보여질 수 있겠느냐? 일부 어떤 이들은 쉬바령검을 숭배한다. 부유한 사람들은 동근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그것을 링검이라 부르며 숭배한다. 그는 하나의 별일 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주 심오하며, 이해되어야 한다. 영혼은 더 작아지지도 더 커지지도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어디에나 맞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제 영혼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아버지도 안다. 영혼은 아버지를 소리쳐 부른다. 너희

들은 제 영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지고의 영혼을 볼 수 있겠느냐? 물론 신성한 시선으로는 그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를 알고 있는데, 그를 보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이 신인들이 되는 교육이다. 이것은 미래의 새 세계를 위한 공부다. 락쉬미와 나라얀이 그런 행위를 행하는 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합류시대에 배웠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합류시대에만 와서 너희에게 새로운 세계를 위한 공부를 가르친다. 너희가 전시회를 위해 보내는 전보에 써야 할 것을 바바가 알려주겠는데, “지금은 합류시대입니다”라고 써라. “아버지가 ‘너희들은 미래 21생 동안을 위해 태어난 너희의 권리를 나에게서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합류시대”라는 말을 반드시 써야 한다. 너희는 전보를 보내기 전에 정확하게 복사해서 그것을 붙여놓아야 한다. 아주 큰 글씨로 적어야 한다. 이것은 나날이 점점 더 분명해진다. 그 밑에 “밥다다”라고 써라.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인 쉬브 바바가 프라자피타 브라마를 통해 너희를 가르친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쉬바는 무체다. 그는 그 자신의 몸을 갖지 않는다. 브라마, 비슈누, 양카르는 천사처럼 미묘한 존재들이다.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몸이 있다. 아버지가 이르는데, 나는 몸을 갖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름과 형태를 초월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너희 자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한다. 나는 무체이지만, 내가 올 때는 틀림없이 몸이 하나 필요하다. 나는 자궁에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이 평범한 몸에 들어왔다는 것을 내가 친히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숭배받을 가치 있었지만 지금은 숭배자가 되었다. 염주에서도 역시 첫 번째가 쉬브 바바이고 그 다음에 한 쌍의 구슬이 있다. 이것은 가정의 길이다. 불순했다가 순수해졌고, 쉬브 바바의 지시를 따름으로써 세계를 순수하게 만든, 가정의 길에 속하는 자들의 염주가 있다는 것을 이제 너희는 안다. 그러므로 그들을 기념하여 염주가 만들어진다. 루드라의 염주가 있고 비슈누의 승리의 염주가 있다. 브라민들의 염주는 만들 수 없다. 그것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만들 수 없었고, 그래서 바바는 염주를 만들고 미묘한 이름들을 주기를 그만두었다. 그들은 여기서 주는 이름들을 여기에 남겨 두고 각자의 예전 이름으로 돌아갔다. 거기서는 아무도 그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우리의 아버지, 선생, 구루인 아버지를 지극한 사랑으로 기억해야 하지만, 마야는 너희가 잊게 만들 정도다. 이런 이유로 너희의 단계가 동요되고 시들해지는 느낌이 있다. 그러다 쉬브 바바를 기억함으로써 너희는 다시 기민해진다. 앗차.

가장 다정하고, 사랑스럽고, 오랫동안 잊었다가 이제 다시 찾은 자녀들에게,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밥다다가 사랑과 기억과 아침인사를 보낸다. 영적인 아버지가 영적인 자녀들에게 나마스테.

실천 요지:

1. 사악한 관계들에 대한 모든 애착을 끊어라. 너희들의 지각의 요가를 미래의 새로운 관계들에 연결해라.
2. 남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행복 속에 머물러라. 참된 아버지, 참된 선생, 사트구루의 슈리마트를 따르고,장님들을 위한 지팡이가 되어라.

축 복: 더블 라이트가 되어 결합된 형태를 끊임없이 의식하며 어려운 과제들을 쉽게 만들어라.

끊임없이 기억하는 자녀들은 한결같이 동반을 경험한다. 어떤 문제가 그들의 앞에 와도 그들은 결합되어 있으며 두렵지 않다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결합된 형태에 대한 의식은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쉽게 만들 것이다. 만일 뭔가 큰 상황이 너희 앞에 오면 너희의 짐을 아버지에게 전부 다 넘기고 너희 스스로 더블 라이트가 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은 천사처럼 밤낮으로 행복하게 춤출 것이다.

슬로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고 충족된 상태로 머무는 자들만이 충족감의 보석이다.

*** 옴 샨티 O M S H A N T I ***